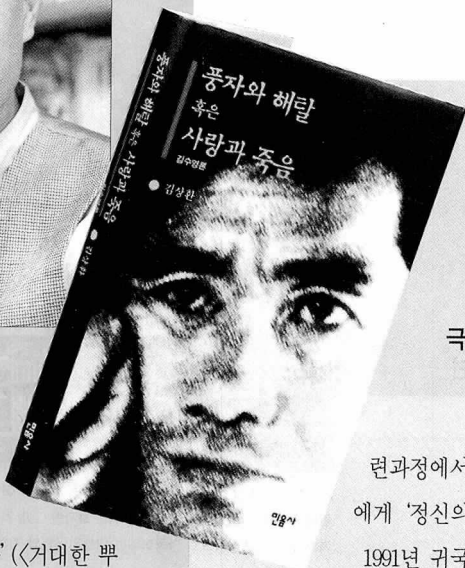


김상환 교수

민음사/A5변형/316면/12,000원



## 한 철학자가 횡단한 김수영 문학의 여백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펴낸 김상환 교수

한 철학자가 시인론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상환 교수는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에서 김수영의 시나 산문의 여백에 함축된 존재론적·형이상학적 사유의 씨앗을 되살려냈다. 김교수는 김수영이 이성적 사유를 견지하되 내면화 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을 ‘현명한 관념론의 길’로 평가한다.

우리 근대 문학사에서 ‘늦 주발보다도 더 쟁쟁 울리는’(<거대한 뿌리>) 자유와 정직의 노래를 불러온 시인 김수영. 동시대의 시인 신동엽이 ‘한반도 위에 그 긴 두 다리를 버티고 우뚝 서서 외로이 주문(呪文)을 외고 있던 천재시인’이라고 평가한 김수영.

### 혼돈과 무질서로 향하는 시적 사유

지금까지 내로라 하는 문학평론가와 문학연구자들이 김수영의 문학을 비평하고 주석을 달아왔다. 그런데 최근 한 철학자가 김수영의 문학을 섬세하게 읽어낸 책을 출간해 화제다. 서울대 철학과 김상환 교수(41)가 펴낸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민음사)은 10년 동안 김수영이 조성한 언어의 숲에서 사유의 모험을 감행해온 기록이다.

“평론가들은 대부분 당대의 현실과 대결하는 김수영의 한 측면을 부각시켜왔습니다. 문학연구자들은 김수영의 문학사적 위상을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해왔죠. 철학연구자로서 저는 김수영의 시나 산문의 여백에 함축된 존재론적·형이상학적 사유의 씨앗을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김교수는 파리 제4대학에서 데카르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양철학 연구자. 그가 김수영을 처음 만난 것은 파리 유학시절인 1988년이였다. 기숙사 친구의 방 서가에 꽂혀 있던 《거대한 뿌리》를 발견한 이후 묘한 희열을 느끼며 김수영에 몰두했다고 한다. 고증학적인 문헌해석 훈

련과정에서 김수영의 문학은 그에게 ‘정신의 해방구’였던 것이다. 1991년 귀국해 처음 발표한 논문이 <점묘화와 백색 존재론>이었다.

김수영에 의해 사유된 시적 공간과 데카르트의 상상적 공간을 연계시킨 성과물이었다. 다른 원고청탁은 거절해도 시에 관한 글은 기꺼이 쓸 정도로 그에게 시와 철학은 한몸이었다.

김교수는 김수영의 문학에서 사유의 일관성을 읽어낸다. 그는 이를 ‘현명한 관념론의 길’로 명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빌려온 이 말은 ‘열린 사고의 지향’을 일컫는다. 모든 이론적 사유가 폐쇄적이라면, 시적 사유는 안과 밖이 소통하는 개방적인 지해다.

“시적 사유는 안정된 질서에 자족하기를 거부하고 혼돈에 발을 들여놓는 사유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황무지로 향하는 용기에서 시적 사유가 나옵니다. 김수영은 이성적 사유를 견지하되 내면화 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합니다.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반성적 차원을 열어놓죠.”

데카르트와 김수영의 접점이 바로 여기서다. 데카르트가 서양의 근대적 사유의 지평을 연 철학자라면, 김수영은 우리나라에 예술적 모더니즘을 토착화시킨 시인이었다. 모더니즘이 두 인물의 공통분모라면, 궁극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밀고 나갔는지에 따라 두 사람은 달라진다.

“데카르트는 철저한 합리론자로서 이성을 신봉합니다. 하지만 김수영은 이성의 한계를 초극하려 하죠. 낙후한 우리의 현실에서 모더니즘을

철저히 내면화해 그것을 극복하려 합니다. 김수영의 가장 큰 매력은 철저한 반성과 방법적 철저성에 있습니다.”

### 사유의 역사 증거하는 대표작

이 책에 수록된 각각의 논문이 일관되게 스며있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다. ‘시(時), 시(視), 시(詩)’가 그것으로, 김교수의 철학적 야심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세 꼭지점이다. 어린 시절부터 언젠가 이 세가지 문제를 파헤쳐보리라고 결심했다고 김교수는 수줍게 털어놓는다.

“시(時)는 존재론적 문제를 총괄하는 문제입니다. 시(視)는 인식론적 문제를 함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시(詩)는 예술적 사유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존재이해와 진정한 인식론적 문제설정의 가능성을 시를 통해 밝혀 보고자 한 거죠.”

김교수에게 이 책의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 10년 동안 김수영을 발견해온 과정이자 자신의 사유의 역사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펴낸 《해체론 시대의 철학》(문학과지성사),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민음사) 등은 이 책을 쓰기 위한 예비과정이었다고 밝힌다.

“텍스트의 여백을 읽는 능력은 자신의 성장과정에 따라 변해옵니다. 현대 프랑스 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해석능력이 반영돼 있는 셈이죠. 이제야 비로소 모종의 출발점에 선 느낌입니다. 제 대표작의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 박천홍 기자